



AI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

- 국표원, '25년 「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」 102개 신규과제 공고 -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「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」(이하 표기력사업)*에 전년(349억 원) 대비 22% 증액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. 이는 미래를 이끄는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작년 5월 국표원이 발표한 「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」의 후속 조치이다.

*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(ISO/IEC)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·제안하고,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&D 사업

우선 '25년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하여 AI, 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*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 아울러 의료, 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.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,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(308억 원)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
* (첨단산업 12개 분야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인공지능, 미래차, 미래선박, 로봇, 첨단제조, 양자, 핵심소재, 원자력, 청정에너지(수소, 태양광, 풍력)

< '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>

- 지원방법 : 국표원(www.kats.go.kr)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 홈페이지 참조
- 공고기간/지원대상 : '25.2.20.(목)~3.21.(금) 18:00까지 / 기업, 대학, 협회, 단체 등
- 지원규모/내용 : 102개 과제(11,702백만원) / 표준연구개발, 표준기반조성 등

한편, 올해부터 더 많은 연구자들이 표준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('24.12월)을 통해 한 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의 제한을 없앴다.

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“향후 표준 R&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”면서, “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표준정책국	책임자	과 장	박종섭 (043-870-5340)
	표준정책과	담당자	연구사	윤승환 (043-870-5344)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